

# 고구려 승랑대종사의 대승종풍 법맥 계승

## “삼론종의 근본 中道 불교 중심사상”

### 종정 석파 석봉 대종사

三論宗을 가리켜 世上사람들이 戲論이라 하는데, 이는 올바른 理解가 아니다. 三論의 根本은 中道에 있다. 中道라는 말은, 兩極端을 超越하는 것을 말하는데 兩極端의 끝에는 언제나 '나(我)'가 있기 마련인데 이 '나'를 克復하면, 中道와 合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나'를 克復하여 '남



하고 苦悶하는 데서 모든 '苦'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것을 克復하는 것이 第一義諦인 것이다. 第一義諦는 어떻게 나를 克復하는가의 문제이다. '나'라는 我執이 모든 相待를 만들었고, 이 相待로 하여 條件 지어진 모든 것에는 利害得失의 相關關係가 成立됐던 것이다. 이에 克復이 第一義諦인 것이다. 二諦의

## “나를 극복하고 남 위하는 것이 중도 이루는 길”

(他)를 보라는 것이다. 世上의 모든것은 問題투성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나'를 中心으로 보는데서 오는 것이요, 相對를 理解하지 못하는데서 基因한 것이기 때문이다. 中論은 언제나 二諦의 立場에서 問題를 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 하나가 世俗諦인데 이것은 問題點을 야기하고, 問題點을 認識하는 것인데 이는 眞理를 알지 못하여 無明을 해내는 데서 基因한 것이다. 사람은 왜 八苦를 안고 살아 가는지 하는 問題이다. 八苦의 基本은 나로부터 基因한 것이다. 나를 認識하는 瞬間에 이 世上 모든 것은 '苦'와 '樂'이라는 兩極端이 생기고 이 兩極端으로 葛藤

克復이 바로 中道요, 破邪顯正이 있었던 것이다. 對立이라는 것, 兩極端이라는 것은 모두 相互相待가 있어서 成立하는 것이요, 相待가 없다면 問題 自體가 成立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破邪하여 顯正하는 것은 成立되는 것으로 相對를 破邪하여 顯正하려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我慢이 獨善인 것이다. 我慢과 獨善은 和合을 낳지 못한다. 고로, 나를 克復 하는 것이 眞理, '空'이요, '空'의 證得은 和合을 이루는 根本인 것입니다. 空의 證得은 般若를 이루고 般若의 實踐이 우리 佛敎의 司命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如來는 有無를 超越해 있으며 寂滅像이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 대한불교 삼론종 종지종풍

- 종명: 대한불교 삼론종(大韓佛敎 三論宗)
- 교조: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 종조: 고구려 승랑대종사(僧朗大導師)
- 중흥조: 대산대종사(大汕大導師)
- 창종일: 1989년 6월 15일
- 종지: 本宗은 釋迦世尊의 自覺, 覺他, 覺行等 基本敎理를 奉體하신 僧朗大導師의 大乘宗風을 宣揚하며 佛法度生함을 宗旨로 한다.

### 三論宗의 宗旨

1. 中道和合 佛法宣揚 2. 破邪顯正 乘生敎濟 3. 宗旨宣揚 宗團 中興 4. 禪教兩修 六花敎團

### 三論宗의 宗風

1. 中道和合 僧信共有 2. 集體創作 尊重包容 3. 六花敎團 四衆 平等 4. 傳統現代 相互融和

### 三論宗의 目標

1. 人間佛敎를 指向한다 2. 三論中興을 指向한다 3. 三論宗의 國際化를 指向한다

### ●종통:

本宗은 釋迦世尊 以來 印度의 馬鳴, 龍樹, 提婆, 喜蔭로부터 淵源된 大乘敎法의 法統을 中國의 鳩摩羅什의 法脈을 이어 받은 僧朗大導師의 佛法中興, 佛法度生의 大乘宗風을 法統으로 삼아 그 法脈을 綿綿히 繼承承傳 한다. 本宗의 所依經典은 三論(中論, 十二門論, 百論)을 正典으로 하고 般若經 및 華嚴經을 兼典으로 한다. 其他 經典의 研究와 念佛知誦은 制限하지 아니한다.

### 대한불교 삼론종 조직

총장: 碩破全禪大導師	부원장: 德波五峯
부총장: 大正李慧空大導師	총무원장: 覺夢金慧承
초대종장: 大汕李惠暉大導師	부원장: 道鏡
승정원장: 信修李宗柱	총무부장: 眞峰
중앙종회의장: 德仁史慧光	교무부장: 道友
사정원장: 大安鄭秋峯	재무부장: 志謙
부원장: 志道	사회부장: 道熙
포교원장: 龍潭尹志雲	규정부장: 虛扶
부원장: 行瑞 孫慧覺	포교부장: 法輪
교육원장: 慧世 金眞峰	강원교구원장: 性圓 淸浩
부원장: 德賢 志敎	충북교구원장: 法潭 志海
수선원장: 正岩 正峯	경남교구원장: 性見 仁峯
부원장: 性均 台觀	전북교구원장: 梵啓 淸譚
문화원장: 淸峯 鏡珠	

## 종단 거듭나기 중장기계획 추진

### 총무원장 각몽 혜승스님

“종단의 출발은 비록 늦었으나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장기적인 발전 안을 세우고 이를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모든 중도들과 불자들의 힘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고 말했다. 도심포교와 어린이포교에 노력을 기울여 온 혜승스님은 총무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부터는 종단의 국제화에 각별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종조인 고구려 승랑스님의 활동무대였던 중국 서하사를 방문, 상호 방문과 인적 교류 등 지속적인 교류를 갖

## 인재양성·복리확대·전통의식 현대화

종단의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또 중생에게 가까이 있는 불교, 파사현정의 진리를 세운 불교를 이뤄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 1년2개월간 종단 화합과 중생포교에 심혈을 기울여 온 점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체제 확립, 종단을 이끌어갈 인재양성, 사찰의 봉사·복지사업 확대, 전통의식 간소화와 우리말 번역, 대승불교의 실현 등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혜승스님은 “종단체제 확립과 전국신도회 활성화, 총무원 청사 건립 등을 통해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틀을 다져나가겠다”

고 의의를 다져나가는 약속을 받아왔다. 대만 복엄정사와의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혜승스님은 종도와 불자들에게 “한국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온 불교에 대한 긍지를 갖고 불법홍포와 종단발전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내 신앙, 내 종단만 최고라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시각과 사고를 지닌 큰 불교인이 되라”고 당부했다. 혜승스님은 대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도심포교와 어린이포교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삼론종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발전에 힘써오고 있다.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명칭 사용 종단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가장 종단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종단년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난 7월 11일자로 종교법인 인·허가 관련 협조를 정부, 광역시, 도청 등 지치 단체에 요청하여 전통불교의 위상에 걸맞는 종단실립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종단불교의 특성을 지닌 한국불교 종단 가운데 한국불교의 공식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 25개를 대상으로 종지, 종풍, 교세 등을 살펴, 종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정법 포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열독을 바랍니다. ■ 후원=(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2002년 12월 1일 대전 대덕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된 대승보살수계대법회에서 석파 종정스님을 전제대회장으로 모시고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천7백여 신도가 보살계를 여범히 수지했다.



◇2000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중국불교 삼론종 서하사와 대한불교삼론종 우호교류행사인 '고구려 승랑 대선사 대례식 대법회'를 봉행했다.



◇중국불교 삼론종의 중흥사찰인 「서하사」

## 한국불교-종단순례



## 대한불교 삼론종

### 삼론종의 근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구려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시기는 372년(소수림왕 2년), 전진왕 부견(符堅)이 사신과 승려 순도(順道)를 통해 불상과 불경을 보냈으므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고구려의 불교는 민간 경도를 통한 격의적 불교와 왕실을 통한 도안적 불교의 두 가지 형태로 발전이 가능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 사회에 토착화되어 민간 사회나 지방 사회의 신앙적인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고 후자는 공식적인 불교가 왕실의 지원 아래 순도에 의해 포교되면서 중앙 왕실이나 지식층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나갔다. 따라서 다른 삼국에 비해서 아주 두드러진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고구려에서는 승려 학자 승랑을 배출하였는데 그는 삼론의 고구려 승랑 대사라고 불리었으며 그는 고구려 불교의 주체적인 수용에 앞장서면서 존재와 무의 변증법적인 지향을 밝혔다. 그 후 불교의 주류는 삼론종이라는 학문적인 경향으로 기울었고 그 바탕은 용수보살의 중론에 근거하고 있다.

중론을 지은 용수(나가르주나)는 A.D 150 - 250년경 남인도에서 태어나 처음에는 브라만의 교학을 배웠으나 불교에 입문한 뒤 소승, 대승 교리에 통달했다고 한다.

### 삼론종의 근본인 '중론'

삼론종의 근본인 중론은 대승반야공관(大乘般若空觀)이야말로 근본불교정신인 '연기(緣起)·무아(無我)·중도(中道)'를 가장 훌륭히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 이 공관에 입각한 특수 부정논리 즉 양도론법(兩刀論法)이나 오구문파(五求門破)와 같은 부정을 거둬내는 논리 이론으로, 불타(佛)의 진의를 알지 못한 채 교리 개념만을 집착·분별·회론하는 일부 아비달마 논자들의 잘못들을 냉엄 철저히

## 삼론종 중론·12문론·백론에 바탕 승랑스님, '존재와 무' 변증법적 이론 정립

파괴(破斥) 불식하였다. 중론(中論) 27품(品) 450여개는, 반야경들이 역설하는 일체개공관(一切皆空觀)을 바탕으로 당시 불교계에 정형화된 중요한 교리개념 대부분을 27 품목으로 거론하여, 이들을 실제 실유시(實有視)하여 분별(分別) 회론하는 사견(邪見) 오류(誤謬)를 없애 버리기 위해 부정에 부정을 거듭하는 특수형식의 논리를 구사하며 동시에 중도실상(中道實相)의 정법(正法)세계를 경쾌히 밝혀낸 것이다.

### 불타관

용수시대에는 <법화경>이나 <화엄경>·<아미타경> 등, 웅대한 불타를 설하는 대승경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불타관에는 그러한 불타가 반영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 용수의 불타관은 대승경전에 나타난 불타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관여래품>에서는 “여래는 유무를 초월해 있으며 적멸상이다”라고 하였으며, <대지도론> 권9에는 법성신(法性身)과 부모생신(父母生身)이라는 2종의 불신이 설해져 있다.



◇우암정사(총본사)



◇부석사(중정스님 주석사찰)

## 대만 복엄정사와 교류·총무원청사건립·2년마다 보살계단 추진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  
서울시 중랑구 망우2동 515-44 316호  
전화 02)433-9780

**부석사(중정스님 주석사찰)**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희의리 289번지  
전화 033)333-7682

**우암정사(총본사)**  
충북 충주시 교현2동 539-21  
전화 043)852-8822